금주의 법구-〈정법염처경〉
게을러 헛되이 살면
미래 세상에도 또한 헛되어
열반을 얻지 못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33호 2017년 2월 1일 수요일

도심 선방서 방부드는 '수행포교시대' 열린다

체계적 참선교육 프로그램 도입 사찰 확대

#서울 종로구 소재 여행사서 근무하는 김○○ 씨(33)는 최근 참선수행을 시작했다. 3년 가까이 일하면서 접한 고객들의 수많은 항의에 '번 아웃(Burn out) 증후군'을 겪어서다. 그런데 조계사 참선입문 저녁반에 등록해 간화선을 공부하면서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평상시에도 화두를 놓지 않으려 노력하다보니 자신을 괴롭힌 문제들이 정작 삶에서 중요치 않다는 걸 느껴서다.

#가정주부 송○○ 씨(58)는 사찰 일요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혈신도다. 하지만 바쁜 직장생활 탓에 좀체 수행을 하지 못했다. 그런 송 씨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불광사의 4개월 과정 참선반을 신청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참선을 시작한 그는 나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양육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각박한 삶에서 느끼는 현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도심사찰들이 마련한 참선 프로그램이 인기다. 오래 전 재가불자들을 위해 개방된 시민선방은 스승의 지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종종 문을 닫는 사례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실참 · 질의응답 등의 기회가 제공되면서 대형 도심사찰 참선 프로그램에 불자들이 몰리고 있다. 게다가 원활한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원 제한까지 있어 신청이 늦으면 대기자로 빠질 정도다.

도심사찰 수행은 산중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힐링 열풍'과 불자의 덕목 중 하나인 '수행'과도 직결돼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여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참선 · 명상반 등이 꾸준히 열린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선림원은 참선입문반 · 자율선원 · 야간선원 등을 마련해 수행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한 회 2달간 진행되는 참선입문반은 20기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간화선 수행이론과 실참을 2년 4학기 심화과정으로 배우는 선림원도 열려 수행에 매진하고 싶은 불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봉은사 봉은선원도 매일 2시간씩 참선지도가 진행되며 주2회 수행면담이 이뤄진다. 전산에 입방기록이 남고, 안거를 성만한 불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입방을 위해선 지도법사 스님과 인터뷰해야 하는데 평소 8~90명, 안거 때 12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국제선센터 · 불광사 · 화계사 · 참불선원 등 많은 사찰서 참선과정을 마련해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부산서도 범어사 · 홍법사 · 미타선원 · 해운정사 시민선원 등 곳곳에서 참선수행과정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명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남방불교 수행단체들의 국내 진출로 인한 수행문화 확산 등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 불교교육을 받으며 수행 관심이 늘어난 것도 주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불교계가 수행포교시대를 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자들의 자기성장에 이은 '회향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수행이 자기만족에 그친다면 정작 포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덕과 지혜를 갖춘 스님들이 지도하며 불자들의 수행공덕을 회향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문화와 결합한 수행을 할 수 있게 불교계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수행포교시대에 맞춰 불교수행이 이웃종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해 현대인들의 이해를 도와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덧붙였다.

불자들의 집중수행을 지도하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명상의 상업적 이용을 경계했다. 스님은 "명상과 참선수행은 불자들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행 붐(boom)이 일어나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불교 본질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교계가 먼저 수행을 올바르게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수행문화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참선반을 운영하는 사찰들은 신청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50명으로 사찰이 보유한 공간에 맞춰 적정 인원을 책정한다. 또 지도법사가 심화과정 및 시민선방 신청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적절한 수행력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입방하도록 하면서, 함께 수행하는 도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 이 같은 사례는 탈종교 현상이 심각한 현대사회서 불교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평가받는다.

부산 미타선원 주지 종호 스님은 "불자들을 지도하기 위해선 선승이 늘어나야 하고, 결국 선풍 가득한 사찰이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마련"이라며 "수행으로 쌓은 공덕이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맑히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참선반 및 시민선원 운영 도심사찰

지역	사찰	내용	연락처
서울	조계사	참선입문(11강) · 선림원(2년) · 자율선원 · 야간선원	(02)768-8525
	봉은사	봉은선원(수행점검 月, 수행면담 火 · 木)	(02)3218-4800
	화계사	참선입문(2개월) · 시민선방(심화과정)	(02)902-2663
	국제선센터	참선입문(10주) · 금차선원(회원제)	(02)2650-2200
	불광사	참선입문(4개월) · 간화선 심화(16주) · 불광선원	(02)417-2551
부산	미타선원	시민선방(연중무휴) · 안거기간 참선반	(051)253-8687
	홍법사	무위선원(月~金)	(051)508-0345
	대광명사	참선교실(火 · 金) · 야간참선 수행반	(051)742-7610
	고심정사	겁외선원(月~土)	(051)464-0068

명상 붐 · 학력 상승 원인
지속된 힐링문화 영향도
입문 · 심화 · 야간 과정 多
新 포교대안 기대효과 높아

수행공덕 회향 모색 필요
상업적 이용도 경계해야



"장애 · 빈곤 없는 세상되도록"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철폐를 주장하며 광화문역에서 1600일 넘게 농성을 펼치고 있는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1월 24일 농성 1616일째 되던 날, 종교계서는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방문했다. 자승 스님은 휠체어에 앉은 박경석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대표의 손을 꼭 붙잡으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종단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특히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간절한 뜻을 정치권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글, 사진= 박아름 기자**

고려양식 JSA법당 낙성 '눈앞'

군종교구 1월 25일 공개
현재 내부 불사만 남아
625관 평화의 종 세워져
순국선열 위패도 봉안 중



JSA 법당(오른쪽)과 '평화의 종' 종각(왼쪽).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법당이 3월 31일 낙성을 앞두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31일 오후 2시 공동경비구역 안보견학 교육장 옆 JSA법당 불사 현장에서 낙성식을 개최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군종교구가 국군불교총신도회와 국군예비역불자회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JSA법당 신축불사 현황이 공개된 바 있다. 법당 낙성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불교 안팎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신축 법당 무량수전의 삼존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부대와 협조하여 3월 31일 낙성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군내면 JSA 안보견학 교육장 옆에 법당 82㎡, 종각 9㎡의 고려양식 목조건축물로 들어서는 JSA법당은 현재 외부 불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JSA법당은 고려양식인 수덕사 대웅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참고 했으며 평화의 종각에는 625관에 달하는 평화의 종도 건립됐다.

불사 완료를 앞두고 당초 군종교구가 세운 예산 확보도 순탄히 진행돼 단청을 포함한 10억원의 예산 중 1월 16일 기준 9억4100만원이 모연된 상황이다. 먼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1억원을 냈으며, 교구장 화주로 8900만원을 모연했다. 군종교구 기금 2억원에 군승 및 군사찰 모연으로 2억5000만원이 충당됐다.

군종교구는 JSA법당 내부에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및 순국선열 위패를 봉안하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법회와 함께 다양한 평화기원 타종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준석 군종교구 포교팀장은 "JSA법당은 단순한 법당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불교의 호국정신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지난해 7월 1일 강원도 인제지역 집중호우로 붕괴된 2사단 17연대 쌍호정사 불사를 진행한다.

군종교구 측은 "현 군예산만으로는 단기간 법당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다음주는 20면 발행합니다.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